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1월

선교편지 제 85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2016년에도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12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보냈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가 건축된 이후 첫번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주변에 결혼식을 치를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는데, 아름다운 디고스 예일 교회가 건축됨으로 인하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까지도 결혼식과 관련하여 종종 문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결혼식에 대한 부푼 꿈은 특히 여자들을 매우 설레이게 만드는데 보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치를 장소 보다는, 결혼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혼식을 하지 못한채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축은 커녕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주민들에게 결혼식을 치룬다는 것은 꿈같은 일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 된 이후부터 출석하기 시작한 한 쌍의 청년이 매주 확인이라도 하듯이 결혼식에 대하여 많은 의논을 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되어서, 교회와 관련되 모든 비용을 배제하고 전교인이 동원하여 지원하는 가운데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룰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전통을 세우고 결혼 당사자는 물론 모든 이에게 은혜가 되도록 기본적인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결혼을 위한 예비 부부 교육도 잘 마치고, 모든 교우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중에 정전이 되어 반주와 마이크 없이 아카펠라로 축가를 부르는 사태가 있었지만, 모두들 기쁨 가운데 기억에 남을 만한 결혼식을 치루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혼식으로 인하여, 교인들 중에서 이미 부부가 되어 자녀들까지 있는 네(4) 가정의 중년 부부가 늦었지만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 아마도 2016년에는 교회내에 성대한 합동 결혼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 22:30)



8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현지 선교 사역의 시작을 다바오 내의 '해변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해변교회는 말 그대로, 태평양을 20여 미터 정도 거리에 마주하고 있는 해변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해변 마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학교를 개설하고, 성경 공부와 구제를 위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선교사 부임 초창기라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저희의 첫사랑과 기도가 듬뿍 묻어있는 교회이고 마을 입니다. 같이 먹고 뛰 놀고,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약을 구해서 치료도 해주고, 아이들의 집에 심방도 가고, 어눌한 현지어로 아이들의 부모들과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약 6년전부터 다바오가 아닌 디고스 지역에서 학원 사역을 시작함에 따라, 두 지역을 토요일과 주일에 함께 섬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함과 동시에 거의 2년동안 해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섬기지 못하게 되어, 늘 아쉬움과 빛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기필코 해변 마을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기쁘게 해 주리라 작정하고, 거의 한달전부터 아이들에게 줄 성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해변 마을을 방문하니, 마치 고향을 방문한 것처럼 동네 아이들, 아줌마, 아저씨, 심지어 강아지들 까지 얼마나 반가워 하는지 모릅니다. 사역 초기에는 이곳 마을에 들어 서면 생소한 환경으로 인하여 내색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푸근하고 정답기 까지 합니다.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눅 2:31,32)**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는 12월 첫 주가 되자마자, 교회 건축 이후 첫 성탄절 예배를 위한 찬양대원을 모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의 찬양팀원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를 드려 왔었는데, 성탄절 만큼은 많은 교인들이 모두 함께 특별한 찬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경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찬양대원을 모집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아쉽게도 별로 지원하는 교인들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찬양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망설이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번 찬양 연습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인 전체가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두번째 연습부터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원하는 교인들 만으로 찬양대를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친교가 끝나자마자, 첫번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4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진 혼성 2부 합창을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첫번 연습을 시작하다 보니, 사기가 충천하여 헨델의 메시아라도 연습할 기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악보를 읽을 줄 아는 교인이 없기 때문에, 녹음된 찬양을 반복하여 틀어 주고, 따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쉬운 찬양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연습이 진행됨에 따라 중도 포기하는 교인들이 생기고, 마침내 최종 30여명이 성탄절 찬양대로 선정 되었습니다.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연습을 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담대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25일, 온 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탄 축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한 찬양대의 특별 찬양은 물론이고 각 부서별 특별 순서로 우리 주님 나심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전 교우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단기 선교를 위하여 보내 주신 선교품 중에서 옷, 학용품, 장난감등의 일부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을 위한 캔디류와 함께 연령별로 푸짐하게 나누어 주니, 기쁨이 두 배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으로 베풀리 먹고, 게임을 하면서 아주 유쾌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2015년 1월 첫주 예배를 교회가 건축되는 중에 완공되지 않은 예배당 구석에서 5명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난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또한 꿈같이 보내고 마침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선교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에벤에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 7:12)



 희망찬 2016년을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색 찬란한 불꽃 놀이로 새해를 축하하는 것은 기본이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서는 등글게 원을 그려 쉬지않고 춤을 추며 새해를 보낸다고 합니다. 끝까지 춤을 추던 마지막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하니, 생각만 해도 새해부터 어지럽습니다. 영국과 경계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에서는 새해가 되기 직전에 온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집 안의 문과 벽을 먹던 빵으로 내려 침으로 새해를 맞이 한다고 합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나쁜 영을 몰아 내는 오래된 전통 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도 제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기 보다는 요란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폭죽'으로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총기 소유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폭죽과 총성이 어우러지는 공포의 축하 행사를 밤새도록 즐깁니다. 금년에도 새해 첫날의 폭죽과 총기 사고로 인하여 각종 화재와 더불어 약 40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뉴스를 새해 첫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의 다바오에서는 몇년전부터 새해의 폭죽 놀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함께하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하여 폭죽과 더불어 총기 난사로 인한 사고가 월등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바오 시장의 강력한 리더쉽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폭죽 사용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여, 이제는 비교적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에 폭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이 폭죽을 능가할만한 각종 '소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모든 소리 나는 것들을 총 동원하여 새해를 맞이 합니다. 거의 새해의 필수품처럼 되어버린 장난감과 같은 '나팔'을 아이들은 물론이고 나이 든 어른들까지 한 시간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불어 댑니다. 옆집, 앞집 동네 이웃은 물론, 밤 잠을 자지않고 동네를 배회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눈 앞에서 악한 영과 싸우는 듯한 기세로 쉬지 않고 나팔을 불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경적을 울리며 좁은 도로를 빠르게 질주하고, 온 동네를 뒤흔들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고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곳의 새해 모습입니다. 자정에 잠시 시끄러웠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고 새벽이 되기까지 계속되는 연례 행사입니다. 이미 며칠전부터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금년에도 소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인내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밤새도록 악령을 다 물리쳤는지, 새해 아침은 인기척도 없이 고요 하기만 합니다.

필리핀은 국민의 86%가 카톨릭이고, 6%가 개신교, 그리고 나머지가 이슬람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국민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의 이름'이 아닌 요란한 '소리'로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금년 2016년에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힘 입어서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선교지에서 '주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칠십 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눅 10:17)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